

본 자료는 2004.4.23(금),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보도자료 (산업자원부 공보관실)	담당과	시장개척과
		담당자	권평오 과 장 김연수 사무관
		전화번호	2110-5322
천리안·하이텔 : go epic, 나우누리 : go mocie, 인터넷 : www.mocie.go.kr			

수출 미래, BRICs 시장진출 성공여부에 달려

- 산자부, 對BRICs 시장진출 적극 추진키로 -

- ◇ 산업자원부는 BRICs 경제의 급성장 추세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이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
- ◇ BRICs 국가들은 최근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거대 수입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BRICs 시장에 대한 수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
 - 특히, BRICs 경제는 2040년 현재의 G6 경제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(Goldman Sachs 보고서, '03.10월)되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
- ◇ 산자부는 이러한 BRICs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시장진출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
 - ① 현지 직접투자와 수출마케팅 병행
 - ② 시장별·품목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 추진
 - ③ BRICs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
 - ④ 수입규제 등 무역마찰 가능성에 적극 대응
- ◇ 산자부는 금번에 마련한 전략을 토대로 향후 관계 전문가 및 수출업계·수출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수립한 후, 민·관 공동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※ 對BRICs 시장진출 확대방안 : 별첨

對BRICs 시장진출 확대전략

1. 우리 수출에 있어서 BRICs시장의 중요성

□ BRICs 국가(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)는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,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 활성화에 따라 거대 수입시장으로 부상중

○ 수입규모가 '01년 4,059억불에서 '03년 6,077억불로 약 50% 증가, 전세계 수입시장의 7.8%를 차지

□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BRICs 수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, 우리 수출증가를 견인

○ 최근 4년간 對 BRICs 수출금액은 2.4배 증가하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%로 상승

* 對BRICs 수출비중(%): ('99)11.8 → ('00)12.0 → ('01)14.7
→ ('02)16.9 → ('03)21.0

○ 이는 중국·인도·러시아에 대한 수출 급증에 기인하며, 브라질을 제외한 BRICs에서의 한국상품의 위상도 향상

< 對BRICs 수출 추이 >

(억불, %)

	2000	2001	2002	2003
중 국	184.5 (10.3)	181.1 (9.6)	237.5 (9.7)	351.1 (10.5)
인 도	13.3 (1.6)	14.1 (2.2)	13.8 (2.2)	28.5 (3.0)
러시아	7.9 (1.2)	9.4 (2.1)	10.7 (2.2)	16.6 (2.5)
브라질	17.2 (2.6)	16.1 (2.8)	12.5 (2.3)	11.4 (2.2)
BRICs 계	222.9	221.5	274.5	407.6

* 자료 : WTA, KOTIS

* ()안은 해당국 수입시장점유율 (2003년중 인도는 1~6월, 러시아는 1~11월)

☐ 더욱이 BRICs 국가는 풍부한 노동력, 자원 및 큰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, 40년내에 선진국(G6) 경제 규모를 능가할 전망

o Goldman Sachs 보고서에 따르면, 2050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, 인도는 3위, 브라질 5위, 러시아는 6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

2. 향후 對BRICs 수출여건 전망

< 기회요인 >

☐ BRICs 경제의 지속 성장으로 인한 수입시장 확대

☐ BRICs 국가와의 지리적 인접성(중국, 러시아, 인도) 및 산업구조상 높은 보완관계

☐ 한국의 국가이미지 개선 및 인지도 상승

☐ BRICs 경제가 한국 수출주도품목인 IT 위주로 성장

< 제약요인 >

☐ 무역흑자 지속으로 인한 수입규제 가능성 및 경쟁 품목에 대한 자국산업 육성정책

☐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한 물류비용 과다(브라질)

☐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역내교역 심화

3. 對BRICs 시장진출 확대전략

① 현지 직접투자와 수출마케팅 병행

-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 중심의 현지 직접투자 확대로 부품 등 관련제품 수출을 유도하고 무역마찰을 극복
- 해외전시회 참가·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
 - *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시 우대, 인도 광응용제품 시장개척사업 등
- SOC 등 각종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

② 시장별·품목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 추진

- 중국 : 양국간 교역 균형화 및 내실화를 통해 수출증가세를 지속하고, 휴대폰 등 소비재에 대해서는 韓流 및 대규모 한국상품전을 활용하여 국가·브랜드 이미지를 제고
 - * 구매사절단 파견('04년 5회), 상해 일류상품전 개최(10월) 등
- 인도 : 현지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 진출 및 수입규제를 극복하고, IT 및 통신인프라 시장진출 확대
- 러시아 : Made in Korea의 프리미엄 이미지 확산을 활용, 부유층 대상 고가의 소비품목 시장을 공략
 - * '03년 LG·삼성이 에어컨·DVD 등 5개 분야에서 러시아 "국민 브랜드"에 선정된 데 이어 '04년에도 컬러 TV 등 7개 부문에서 수상
- 브라질 : FTA가 발효된 칠레를 교두보로 활용, 지리적 원격성·Mercosur 중심의 교역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극복

③ BRICs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

- KOTRA의 중소기업지사화 전담인력 보강 및 BRICs 지역 무역관 확충을 통해 시장조사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서비스 강화

* '03년 무역관 3곳(러시아· 인도· 중국 각 1곳) 신설, '04년 무역관 1곳(러시아) 신설 및 인력 3명(중국) 증원 추진중

- BRICs 진출 종합 정보사이트 구축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관련동향 등 정보제공 강화

④ 수입규제 등 무역마찰 가능성에 적극 대응

- 무역 흑자국인 중국· 인도 등에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, 수입규제 사전예방 및 무역환경 개선

* 구매사절단 파견(중국 5회, 인도 1회) 등

- 상무관 및 KOTRA 무역관간 협조체제를 강화, BRICs 국가의 경제정책 및 수입규제 동향을 사전에 모니터링

* '04.1월 현재 BRICs 국가의 對韓 수입규제는 46건으로 총 피소건수의 33%를 차지

- 환경·자원·기술·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民官차원의 협력체를 구성·활성화

* '한-브라질 과학기술 공동 개발사업' 추진 등

<참고> BRICs 국가별 경제동향 및 시장진출 전략

① 중국

1. 최근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 수출현황

□ '78년이래 연평균 9.4% 성장, 향후 7~8%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전망

* GDP 성장률 : ('01)7.5% → ('02)8.0% → ('03)7.1% → ('04)8.4%

○ '03년 대외교역은 전년대비 37.1% 증가, 세계4위 교역 대국으로 도약, 특히 수입은 약 40% 증가, 세계 3위 부상

* 수입규모 : ('01)2,436억불 → ('02)2,953억불 → ('03)4,131억불

□ '92~'02간 한·중 교역은 약 6.5배 증가, '03년에는 수출 351억불로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됨

* 우리나라 전체 수출중 비중 : ('92)3.5% → ('03)18.1%

< 한·중 교역추이 >

(단위 : 억불,%)

	'00	'01	'02	'03
수출	185(34.9%)	182(-1.4%)	238(30.6%)	351(47.8%)
수입	128(44.3%)	133(3.9%)	174(30.8%)	219(25.9%)
무역수지	57	49	64	132

자료원) KOTIS, ()안은 증감을

○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도 '01년을 고비로 회복, '03년 10%대 재진입

* 시장점유율 추이(%):('00)10.3→('01)9.6→('02)9.7→('03)10.5

* 주요 경쟁국('03):일본(18.5%), 대만(12%), 미국(8.2%) 등

- 부품·소재 시장에서는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있으나 섬유·가죽 등 전통적 수ypo품목은 감소세이며,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·브랜드인지도 취약·對韓 수입규제 확대 등은 對中 수출에 제약요인

2. 수출유망분야 및 확대 방안

【 수출유망분야 】

- ◇ 유망분야는 디지털 가전, 휴대폰, 건축내장재, 철강, 에너지 및 설비교체분야, 건축자재, 원자재 등

□ 다각적인 중국시장 개척활동 지원

- 중국진출 상담회, 시장개척단 활동 강화
 - * 부품·소재 상담회 개최(3회)
 - * 2004 상해한국상품전개최(10월), 샤먼 무역투자상담회 참가(9월)
 - * 시개단 파견(33회) 및 전시회 참여 지원(93회)
- 韓流 활용 중국 내수시장 공략
- 북경올림픽·상해엑스포·서부대개발사업 및 발전소 건설 등에서의 주요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지원

□ 신규 유망품목 개발로 수출품목 다변화

- 중국산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역조 개선, 통상마찰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
 - * 중국상품 구매사절단 파견 (5회), 중국산 유연탄 도입

[2] 인도

1. 최근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 수출현황

□ 인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5.5%의 성장을 보이며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

○ 향후 50년간 연평균 5.8%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2050년에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전망

* GDP 성장률 : ('01)5.5% → ('02)4.3%→('03)6.4%→('04)6.9%

* 수입시장규모 : ('01) 501억불 → ('02) 569억불 → ('03) 339억불(1~6월)

□ '96년 이후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진출 확대로 교역이 증가, 특히 '03년 수출이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대폭 확대

* 인도는 한국의 13위 수출국이며, 대 인도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1.1%

< 한 · 인도 교역 추이 >

(단위 : 억불)

	'00	'01	'02	'03
수출	1,326	1,408	1,384	2,853
수입	985	1,106	1,249	1,233
무역수지	341	302	135	1,620

출처)KOTIS

○ 인도시장에서 한국상품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, 특히 '03년에는 10위권에 진입(9위, 3%)

* 시장점유율 추이(%):('00)1.6%→('01)2.2%→('02)2.2%→('03) 3.0%

* 주요 경쟁국('03):미국(6.9%), 중국(4.9%), 일본(3.0%) 등

○ 25%이상의 고관세 규제로 인한 소비재 진출 부진 화학, 철강, 직물류 등 인도 내 생산 증가품목 중심의 수입규제 강화

* 인도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25건으로(석유화학이 그중 20건)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가하고 있음

2. 수출유망분야 및 확대 방안

【 수출유망분야 】

◇ 유망분야는 통신장비·컴퓨터 및 주변기기, 섬유·공학 기계, 포장기계, 자본재, 자동차 및 전자부품, 플랜트설비, 인프라 건설장비 등

□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수출을 견인

○ 현지 투자를 통해 서남아·유럽·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화와 내수시장 공략을 병행, 수입규제 회피

* 삼성, LG등 대기업 진출 기반을 활용, 중소 부품업체 진출 확대 추진

* POSCO의 현지투자 진출을 계기로 한·인도 협력관계 극대화 추진

□ 양국간 민·관 경제협력 강화

○ 우리 민간경제 단체(전경련 등)내에 한·인도 경협업무를 전담할 상설조직을 설치, 경제협력 및 세미나 정례 개최 등

□ 인프라개발 프로젝트·플랜트 건설 수주지원 활성화

□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통상협상 강화, FTA체결을 통한 교역 증진 도모

③ 러시아

1. 최근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 수출현황

□ 고유가 및 건실한 재정운영에 힘입어 '98년 경제위기 이후 연 5년째 꾸준한 성장세

- 2018년에 이태리, 2024년 프랑스, 2027년 영국을 능가, 2050년에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

* GDP 성장률 : ('01)5.0% → ('02)4.3% → ('03)7.3% → ('04)6.5%

-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1인당 실질가처분 소득이 '03년 13.5% 증가함에 따라 외국산 완제품 수입수요 폭증

* 수입규모 : ('01)364억불 → ('02)408억불 → ('03)449억불(1~11월)

□ 최근 러시아 경제상황 호전에 따라 수출이 증가, 시장점유율도 3년만에 2배 이상 상승, '03년 2.5%(13위)에 도달

< 한·러 교역추이 >

(단위 : 억불)

	'00	'01	'02	'03
수출	7.9	9.4	10.6	16.6
수입	20.6	19.3	22.2	25.2
수지	-12.7	-9.9	-11.6	-8.6

출처)KOTIS

* 시장점유율 추이(%) : ('00)1.2% → ('01)2.1% → ('02)2.2% → ('03) 2.5%

* 주요 경쟁국('03):독일(14.3%), 중국(6.5%), 미국(5.1%) 등

- **Made in Korea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어** 중소기업도 후광효과 향유가 가능하나,

* '03년 LG, 삼성이 러시아 "국민 브랜드"에 선정(에어컨, DVD 등 5개 분야)된 데 이어 '04년에도 7개 분야에서 수상

- 일부 전자, 자동차 관련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對러시아 비즈니스 기반이 약하고 대기업형 제품의 단순 상품 판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

2. 수출유망분야 및 확대 방안

【 수출유망분야 】

◇ 유망분야는 노후설비 교체, 섬유·포장인쇄기계, LCD 모니터, 휴대폰, 식품류, 자동차 등

☐ 향상된 국가이미지 활용, 중소기업 진출 촉진

- o Made in Korea의 프리미엄 이미지 확산을 활용, 부유층 대상 고가의 소비품목 시장을 공략하고 후광 효과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진출 촉진

* 모스크바 한국상품전, 해외전시회 지원 15회, 시장개척단 30회 파견

☐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및 TSR을 통한 교역 확대

- o '한-러 자원협력위원회'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이용, 주요 에너지 개발사업(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등)의 조기 착수 및 우리 업계의 참여 지원
- o TSR(시베리아 횡단철도)를 통한 수출로 러시아를 대유럽 수출의 중간기지로 활용, 종합상사를 통한 진출확대 모색

☐ 기계·플랜트·자원개발 프로젝트 수주노력 강화

4 브라질

1. 최근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 수출현황

- '99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물가안정과 공공부채 축소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함에 따라 성장 부진

* GDP 성장률 : ('01)1.3% → ('02)1.9% → ('03)-0.2% → ('04)3.5%

- 경제침체에 따라 수입시장 규모도 500억불 전후에서 보합세

* 수입규모 : ('01) 556억불 → ('02)472억불 → ('03)483억불

- 그러나, 풍부한 자원과 기초 산업기술로 성장잠재력은 지대, 2050년에는 세계 6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

- 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'95년부터 교역이 증가하였으나, 최근 경기침체로 수출도 부진, 한국상품 시장점유율도 하락

< 한-브라질 교역추이 >

(단위 : 억불)

	'00	'01	'02	'03
수출	17.2	16.1	12.5	11.4
수입	9.4	11.2	12.5	16.2
수지	7.8	4.8	-	-4.8

출처)KOTIS

* 시장점유율 추이(%):('00)2.6%→('01)2.8%→('02)2.3%→('03) 2.2%

* 주요 경쟁국('03):미국(19.8%), 독일(8.7%), 일본(5.2%) 등

- 최근 브라질에 투자진출한 업체들의 부품 등 원부자재가 상위 10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하고 (전체수출의 60%이상 점유) 원유가 4대 수입품으로 부상하는 등 수출입 구조에 변화

o 브라질 정부의 강력한 자국산업 보호정책 및 경제적 배타주의,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한 물류비용 과다 등이 장애요인

- 무역수지 악화시 수입규제 강화, 통관규제 빈발, 고관세제도(기본관세를 최고 35%, 일반소비재 평균 15% 수준) 등

2. 수출유망분야 및 확대 방안

【 수출유망분야 】

◇ 유망분야는 광케이블, 컴퓨터부품 등 IT산업과 자동차 부품·타이어, 산업기계 및 금형, 지문인식시스템 등 보안산업 등

□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현지 생산·판매 거점을 확보하고 투자업체의 사업확대로 우리 부품·소재 관련 제품 수출제고

* '03. 3 현재 직접투자는 32건 2.7억불에 불과하며, 특히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 필요

□ IT·플랜트 등 정부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

o 브라질 정부의 현대화 프로젝트에 부응, IT 분야에서는 전화교환설비, 도난방지시스템 등에, 자원개발사업에서는 석유, 철광석등 분야에서 정부 프로젝트 입찰에 적극 참여

□ 한-칠레 FTA를 브라질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